

# 세종대학교 2025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

계 열	인문계열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 명	

## ※ 문제지 확인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4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답안지는 **흑색 필기 도구(볼펜, 샤프, 연필 등)**로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수정 시에는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완전히 지운 후에 재작성하거나 두 줄을 그은 후 두 줄 위에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흑색 이외의 필기구 사용불가, 수정액 및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2. 수험번호와 생년월일을 숫자로 쓰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 표기하여야 합니다.
3. **답안의 작성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며, 인적사항 및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4.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감점 처리**됨을 유의 바랍니다.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 세종대학교 2025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가) 동물을 떠올리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면이 하나씩 있다.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전형(典型)으로서의 면이다. 사람은 어떨까?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영국 박물관이 소장한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의 주인공은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집트의 귀족이다.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모습을,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성 혹은 자세지만, 이 그림뿐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벽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일단 대부분의 벽화가 무덤 벽화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주인공이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 상으로 그려지면 그 원근 표현에 따라 사지 가운데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아예 안 보일 수 있다. 이는 그 부위가 멀리 있거나 다른 것에 겹쳐져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작거나 없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집트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염려를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자칫하면 사자(死者)는 작은 팔을 가지고, 혹은 사지 가운데 하나 없이 내세를 살아야 할 것이다.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

이처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인체의 일부를 작게 그려 넣는 것은 원근법에 따른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의 크기를 줄여 버리는 것으로 느껴졌다. 그것은 불균형이요 파괴였다. 그들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시각 상이 아니라 개념 상에 바탕을 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시각 상이란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다. 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위치에 따라 실제보다 더 크거나 작아 보이듯 주체가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낸 것이다. 반면 개념 상은 시각적으로는 모순 되더라도 알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이미지다. 그런 까닭에 대상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실제 그 형태나 모양이 어떤가에 더 관심을 둔 이집트 벽화는 시각 상보다 개념 상을 더 중시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로부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 미술의 일차적인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말이나 글처럼 말이다.

(나) 동양화의 특징 가운데 서양화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요소는 바로 '여백'이다. 여백이란 그림이 그려지는 화면에서 그려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빈 곳을 말한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지만, 그대로 하늘이 되기도 하고, 안개나 공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서양화에서는 빈 곳을 허용하지 않는다. 작품에 빈 곳을 남기면 미완성작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조선의 산수화에서 하늘은 여백으로 비워진 공간이지만, 서양화에서 하늘은 색이 칠해진 하나의 구체적인 공간이었다. 그런데 서양화의 영향으로 조선 후기 산수화에도 하늘을 채색한 그림이 등장하게 된다. 강희연(1738 ~?)의 「인왕산도」가 그것이다.

강희연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중인 화가로 적극적으로 서양화법을 수용했다. 그는 인왕산의 실제 경치를 그리면서 배경에 보이는 하늘 전체를 옅은 푸른색으로 채색했다. 이는 기존의 산수화에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여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 주는 특별한 시도였다. ……

그런데 서양화법에 매료되었던 실학자들의 태도를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발견된다.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과 같은 이용후생 학파(북학파)는 주로 서양화의 회화적 표현에 관심이 많았다. 이에 반해 이익이나 정약용 같은 경세치용 학파는 회화의 원리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는 기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의 학문적 지향이 다르듯, 서양화법에 대한 인식 또한 특정 방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흥미롭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유입된 서양화법은 다양한 분야의 그림에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서양화법의 유행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도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정신'을 중요시한 동양화의 전통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그만큼 다른 회화적 표현을 낳았던 듯하다.

(다) 말이 먼저일까, 생각이 먼저일까? 이 논쟁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처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대상을 떠올리기는 어렵지만 이름을 잘 알고 있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떠올리는 것을 보면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기저기’나 ‘오늘내일’은 표현이 자연스러운 데 비해 ‘저기여기’나 ‘내일 오늘’은 어색하다. 이는 발화자에게 가까운 것을 먼저 인식하는 사고의 경향이 언어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관찰해 보면,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고력이 발달하고 발달된 사고력이 다시 언어 능력의 발달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언어와 사고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

인간은 사회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된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또 집단 간의 이익이 달라 발생하는 갈등을 언어로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언어가 사회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언어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형성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우리말에 ‘쟁기, 보습, 멩에, 호미, 낫, 도리깨, 따비, 썰이’와 같은 농사 관련 용어가 발달되어 있고, 영어의 ‘rice’에 해당하는 말이 ‘모, 벼, 쌀, 밥’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쌀이 주식인 농경 문화를 근간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 언어는 그 자체가 언중이 오랜 세월을 걸쳐 이룩한 문화의 산물이자 그러한 문화를 후대에 전승하는 매개체이고,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라) 사임은 허기진 듯이 빵을 물어뜯어 한입 가득 두 번을 삼켰다. 그리고 나서 현학적인 열기를 뿜으며 말을 계속했다.

“말을 없애 버린다는 건 멋진 일이야. [중략] ‘좋은(good)’이란 말을 예로 들어보세. ‘좋은’이란 낱말이 있으면 ‘나쁜(bad)’이란 낱말이 무엇 때문에 따로 필요하단 말인가? 그건 ‘안 좋은(ungood)’이란 말로 충분하다네. 또 ‘좋은’이란 말을 더 강하게 쓰고 싶을 때 ‘뛰어난(excellent)’이나 ‘훌륭한(splendid)’ 등 다른 희미하고 쓸모없는 낱말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더 좋은(plusgood)’이란 말이면 넉넉히 의미가 전달되고, 더욱 강조하고 싶으면 ‘배로 더 좋은(doubleplusgood)’이라 하면 되는 거야. 물론 우리는 이미 그런 형태의 말을 쓰고 있지만 《신어사전》 결정판에는 그 밖의 딱 낱말은 실리지 못할 걸세. 결국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모든 개념은 단 여섯 개의 낱말로 충분히 표현될 거야. 사실은 단 한 개의 낱말로 된 것이지만. 윈스턴, 좋다고 생각되지 않나? [중략] 신어만이 세계에서 해마다 어휘가 계속 줄어 가는 유일한 언어라는 걸 자네는 알고 있나?”

물론 윈스턴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찬성한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사임은 거무스름한 빵을 다시 한 조각 물어뜯어 얼른 씹고는 말을 계속 이어 나갔다.

“신어의 완전한 목적이 사고의 폭을 좁히려는 데 있다는 걸 자네 모르겠나? 결국에 가서는 사상죄도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게 해 놓자는 걸세. 왜냐하면 그걸 나타낼 낱말이 없으니까 말이야. 필요한 모든 개념은 정확하게 단 한 마디로 표현될 거고, 그 의미는 정밀하게 뜻을 나타내고 다른 보조적 의미는 지워져 잊게 될 테니까 말이야. 그 과정은 자네나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오래 이어질 거야. 해가 갈수록 낱말은 자꾸 그 수가 줄고 그러면서 의식의 범위도 계속 좁아지는 거지.”

• 결정판(決定版): 더 이상 고치거나 보탬 것이 없도록 완벽하게 다듬어 내는 출판. 또는 그 출판물.

1. 제시문(가)의 ‘시각 상’과 ‘개념 상’의 관점에서 제시문(나)의 동양화와 서양화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제시문(라)의 사임의 주장을 요약하고 이를 제시문(나), (다)를 모두 논거로 활용하여 비판하시오.  
(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감점 처리됨)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Tel 02-3408-3114 [www.sejong.ac.kr](http://www.sejong.ac.kr)

입학안내 Tel 02-3408-3456, 4455 Fax 02-3408-3556 [ipsi.sejong.ac.kr](http://ipsi.sejong.ac.kr)